

가정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특수 교회학교 특아부)

충현교회

요엘서

※ 4월호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새벽강단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 하나님이다’이다. 신앙의 고백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 마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과 같다.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900여년전이라고 생각한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의 책 1 : 2에서 요엘 3 : 16을, 9 : 13에서 요엘 3 : 18을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책 13 : 6 절에서 요엘 1 : 15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사야보다 먼저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소선지자들 중에 가장 초기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오래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다.

요엘서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책망하였던 죄들이 언급되지 않았고 우상숭배의 죄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요엘서의 예언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4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의 영역과 가족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3. 속한 시일 내에 2만 성도되도록(현재 1만 5천여)
4. 교회학교 1만 학생 되도록(현재 7천 6백여)
5. 구역활성화를 위하여
6. 가정마다 가정예배 드리도록
7. ‘시온성 대행진’ 성공을 위하여(6월 6일부터 15일간)

1 (토)시대의 징조

찬송 262 성경, 욥 1:1-4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1:2)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 후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조를 예언하게 하시고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게 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더욱 가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의 징조는 팻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는(4 절)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굶주림의 화신’이라고 불리울만큼 90마일 이상의 면적에 있는 모든 풀과 잎사귀를 갉아먹어 치웁으로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곤충의 종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때니 애통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징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바로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통할 때 애통하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은 지금이 올 때라 했습니다.

들으라 「늙은 자들아...이런 일이 있었느냐」(1:2) 늙은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조의 시대나 그들의 한 평생에 이런 재앙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은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큰 재앙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늙은 자들은 앞으로 올 재앙 때문에 자녀에게 까지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

** 시대적 감각을 갖고,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의 이 시대를 바로 볼수만 있다면 이 시대는 위협 수위를 넘은 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매우 위험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민족과 국가를 심판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와진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만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눈앞에 도래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시대 감각에 눈을 뜨게 하시고 위협 수위를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충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주일) 취(醉) 농(農) 제(祭)의 슬픔

찬송 330 성경, 욥 1 : 5 - 20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도」(1 : 6)

올라 「취하는 자들아...울지어다」(1 : 5) 술취한 자들은 열락하는 자들입니다. 노래와 귀에 거슬리는 웃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단 포도주가 끊어졌음을 인하여 울어야 할 것입니다(1 : 5, 10).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1 : 12). 순간이 지나면 애통으로 바뀝니다. 넘치는 때가 있으면 마르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찾아 헤매어보나 그 기쁨의 때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농부들아...곡할지어다」(1 : 11) 수고하고 수고한 댓가를 얻지 못하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땀흘리고 씨뿌리고 가꾸어 보았으나 얻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고 창고가 비고 곡식이 시들었으므로 곳간이 무너졌으니(1 : 17) 농부의 비참함을 어디에 견주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소떼가 민망하고 양떼도 피곤하니 사람의 비참함이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피올라 「제사장들아...슬피 울지어다」(1 : 13) 먹을 것이 없는 자도 비참하지만 할 일이 없는 자도 비참합니다. 제사장들은 밭의 곡식에 의존하는 소제와 포도나무의 소산에 의존하는 존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1 : 9, 13) 이 슬픔이 또한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못한 자의 비참함입니다.

** 재앙이 왔을 때 너무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왔든 내부적인 것으로 왔든 어떤 싸인이 올 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같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행기 추락, 기차 전복, 지진 발생, 재앙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경고의 싸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어야 됩니다(눅 23 : 28).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굶김(1 : 9), 황무, 처량, 진흙, 마름(1 : 10), 없어짐(1 : 11), 시들(1 : 12)의 단어가 우리 생애에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루에도 몇번씩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싸인을 볼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재앙을 면케 하옵소서. 이종운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2 : 1)

잊을 수 없는 날 여호와와 날이 임박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전 4 : 3에는 사람의 날(Man's day)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한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와 날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날들은 이날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벧 1 : 6). 그날은 심히 크고도 두려운 날이요 시시하게 넘길 날이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굉장한 것같으나 그 태풍이 지난 후에는 잊어버리지만 여호와와 날은 영원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의 심각성은 뜨겁도 평원에서의 선과 악의 대결인 아마겟돈전쟁을 예시하고 있습니다(사 13 : 6 - 9, 겔 30 : 3). 이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암 5 : 18, 습 1 : 14 - 2 : 2, 사 2 : 1 - 21).

불심판의 날 1915년 팔레스틴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3월에서 5월까지 메뚜기들이 덩벼 들어 모든 채소와 과일나무, 푸른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떨어지는 재앙은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2 : 2).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뻥뻥한 구름이 끼인 날이요 피로 얼룩진 날입니다. 성경에 어두움은 환란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사 8 : 22, 60 : 2 렘 13 : 16, 암 5 : 18, 습 1 : 15, 16). 자고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곧 불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2 : 3) 적군의 낮빛을 능히 하얗게 바랄 수 있는 무적의 군대요 하늘이 떨고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날입니다(2 : 4 - 11).

****** **앞이 캄캄하십니까? 별들이 빛을 잃었습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와 날에 대한 예비의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얼굴 빛을 하얗게 바랜 큰 두려움이라도 믿음 준비한 자에게는 적군이 되지 못합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뻥뻥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모든 죄와 난관을 흐트러트리실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날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밝은 햇빛아래 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두려운 날을 보지 못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원로목사님의 남은 여생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화) 마음을 찢으라

찬송 324 성경, 욥 2 : 12-17

「너희는 옷을 찢지말고 마음을 찢고…」(2 : 13)

늦지않은 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와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너희가 그날이 도래하기 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한 그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의 순간을 맞지 않도록 회개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망보다는 축복을, 징계보다는 용서를 원하십니다.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 보다는 사랑으로 설득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괴롭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죄의 길과 파멸의 구덩이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징계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1 : 13).

진정한 회개 12-3 을 보면 외형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옷을 찢기 전에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내적인 변화없는 외형적 모습은 오히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형식을 취하다보면 참 진리를 잃거나 또는 외적인 것으로 대체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비참성을 깨닫고 참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충성보다 더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시 51 : 17). 사람 앞에 돌아오는(가룟유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베드로) 것이 회개입니다. 유다는 자살자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후회한 자와 회개한 자의 다른 열매입니다. ‘회심’(13)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 라틴어 ‘회개’라는 말은 마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마음의 변화없는 의식적인 행동을 외식이라 하고 위선이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타성에 젖어 마음의 움직임 없이 행동으로 직접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장래를 내다보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팻종이의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2 : 25)

여호와와 공화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우셔서 공화를 베푸십니다(2 : 18). 공화로부터 임하는 세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번째 복은 물질적 번영입니다(2 : 19). 메뚜기에 먹혀 황폐했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십니다. 물질적 번영을 누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친다(골리반)고 하는 생각입니다. 몸도 생명도 명예도 청춘도 다 바친다 해 놓고서는 자기 불일 다보고 있는 것이 믿는 자가 범하기 쉬운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여도 안되고 물질적 번영이 인간에게 힘이나 가능성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는 불경에 빠져서도 안됩니다(단 4 : 20). 두번째 복은 국가적 안녕입니다(2 : 19, 20). 환경의 평안을 주십니다.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북편 군대, 메뚜기때 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던 그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 보내십니다. 담벽을 쌓은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지킬만한 무기도 없고 힘도 없으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 원수가 침공을 못합니다. 세번째 복은 잃어버린 날들의 회복입니다(2 : 25). 잃어버린 햇수, 상처받은 햇수, 상실한 그 모든 날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한 삶이요 허비한 삶이요 잃어버린 때인데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 약속은 물론 새 약속까지 주시면서 죄의 권능을 깨치시고 개인적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다가 화를 불러들일까 염려해야 됩니다(단 4 : 37).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 수포로 돌아간 생명 연장, 오욕된 명예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 날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므로 물질의 번영과 생명의 연장, 잃어버린 명예의 회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교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목) 다른 신은 없다

찬송 94 성경, 욥 2 : 21-27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2 : 27)

재교육 출20 : 2 - 3 제 1, 2 계명의 말씀이 욥 2 : 27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선 소극적으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1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맹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섬기는 것은 맹신이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요(출 3 : 14)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도 없으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처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었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내신 하나님, 죄악의 종, 사탄의 종으로부터의 구원, 죽음과 노예의 신분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지와 불신때문에 노새처럼 은혜를 상실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 우리 가운데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며 노예와 같이 끌려 다녀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땅위에 빈손 들고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요 죽음과 죄와 가난과 질병에서 허덕이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알고도, 모르고도, 미련해서도, 환경 때문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시다.

기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고 긍정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력하게 하소서. 테리파이 선교사님과 마일수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금) 성취된 예언

찬송 177 성경, 율 2 : 28 - 32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2 : 28)

예언 예언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루기가 매우 힘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적용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의 날, 여호와와 그의 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가 가능하고 쉬워집니다.

오순절 베드로는 율 2 : 28 이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행 2 : 17). 요엘의 예언은 기다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 : 28 이하의 예언은 실상은 민 11 : 29에서도 그 깊이와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모세가 체험합니다. 장로 70인이 특별기도를 할 때 68인이 장막에 들어가고 2명은 장막 밖에 있었는데 장막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자 장막 밖에 있던 두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급하게 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급하지 말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실 것을 예언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특정한 몇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였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 : 36). 요엘에게 주신 약속은 우주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에게 중요한 개혁의 원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만인 제사론입니다.

****** 우리는 물질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박함을 깨닫고 말에나 행실에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심취된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2 : 32)

성직자주의 존 스타트는 평신도와 목사와의 잘못된 관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직자 주의’는 성직자를 너무 강조하므로 성직자 중심이 되어서 평신도는 목사를 돕기만 하고 헌금만 내고 따라오라기만 합니다. 이것은 중세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돕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중노릇 했습니다.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쉽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직무를 의미합니다. 책임의 영역을 말한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상으로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며 목사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므로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경하기 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경하다보니 목사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원론주의 이것은 자기 영역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이원론적으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네 일만 하라. 내 일은 내가 한다”하는 사상입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된 지체됨을 무시하는 소치로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상적 관계 목사와 성도들간의 이상적 관계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엡 1 : 11-13). 요엘이 예언한 것은 예언이 성취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 즉 성령이 오시어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 성령 충만하여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후에는 성령이 시키시는대로 개인적으로도 증거하고 단체로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만 아니라 봉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순교도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여 성령받고 서로 서로 섬기며 종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교회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천국 일꾼양성을 위하여 연구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주일) 결심의 골짜기

찬송 348 성경, 욥 3 : 1 - 8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3 : 2)

종말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 전체에 깊이 깔려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속에 포함된 세가지 진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백성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3 : 2),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6의 강조점은 ‘내백성’ ‘나의 땅’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구원함을 받았으니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탄케 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의 부러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대적들의 죄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땅을 분열시킨 것입니다(3 : 2).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하고 갖은 욕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노예가 착고에서 풀려나듯이 죄악의 굴레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 구원의 감격, 구원의 진정한 기쁨,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딤후 2 : 14).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죄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맙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거짓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도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쓰러지고 배신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불러 주셨으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기도 불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결심을 허락하옵소서. 입술을 조심하여 비방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영으로 찬미하는 찬양대원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3 : 9)

경고장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끼를 들지 않고 경고장을 계속 보내시고 인내하시며 버린 자식, 나간 자식, 배신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전장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열국에게 도전장을 보내시며 선전포고를 하십니다(3 : 9). 열국들은 연합하여 전대미문의 동맹을 이루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이다’(3 : 10) 하신 하나님이 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3 : 13)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로 변해버렸는데 낫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곡식이 익었어도 낫이 없으니 그림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열국을 심판하겠다’(3 : 12) 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포도주 틀을 밟으라’(3 : 13) 하셨으니 모순입니다. 포도주가 넘쳐도 마실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 곡식이 익었으나 낫이 없고 포도주독이 넘쳐나도 기뻐할 사람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신부된 자들이 뛰어나가 신랑을 맞이할 텐데 산야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려달라고 핑처럼 목만 숨겨놓은 자들과 같습니다. 도전장의 내용은 전쟁이 아니라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십니다.

***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도전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강직성을 기억하십시오. 응전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농기구를 다 동원하여 무기를 만든다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혜, 재능을 다 동원한다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은 곡식, 포도즙이 그림의 떡이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작 즐거워할 그 시간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패배를 자인하십시오. 목을 끈개 하지 마십시오.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기도 경고와 도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패배를 자인하는 용기도 주옵소서. 교회의 일을 내 기정을 살피듯하는 직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화) 심판 중의 위로

찬송 79 성경. 욥 3 : 14 - 21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산성이 되리로다」(3 : 16)

심판의 시급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판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급하십니까?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시급함을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이 겹쳐서 12시가 되면 추가 가서 공을 때려 소리를 내는데 때리기만 했지 떨어지지 않은 그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의 시급함입니다. 개인 종말이 급해지고 있는 때이므로 결심을 빨리 할 때입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내일 봅시다. 나중에, 천천히”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에 대한 위로를 잊지 않으십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3 : 1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징죄함이 없습니다(로8 : 1). 요엘은 짓밟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가장 비생산적인 작은 산들까지도 포도주와 젖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샘같이 물도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 합니다. 메마른 땅으로 유명한 싯딤 골짜기에도 물이 흘러 옥토가 될 것입니다(3 : 18). 강포를 행한 대적자 애굽과 애돔이 황무지가 되는 가운데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옥토로 거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흘린 피를 깨끗이 씻기움을 받을 것입니다. 피흘림은 원수에게로 돌아가고 유다에게는 영원한 찬송만 있을 것입니다.

****** 한가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죄를 마음 속에 쌓아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가 10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속히 속히 토해 내놓으시라. 버리시라. 결단을 하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합시다. 지금 최선을 다하므로 후일의 화를 멀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위로가(16-18)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를 기억하며 확실한 믿음 준비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땅에서도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집' 빨리 건축하여 빈약한 자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요나서는 여로보암 2 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드헤벨에서 출생한 아밋대의 아들 요나(왕하14 : 25) 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고 당시 최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성의 멸망을 예고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또 한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특히 죄악의 도성 니느웨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다.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멀리 멀리 도망가는 요나의 도피행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드디어는 그를 버리시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불러들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참된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1 : 2)
 상식밖의 분부 니느웨성은 가로를 질러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3 : 3) 큰 도성으로 어린아이만 12만(4 : 11) 이 되는 당시의 최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 이상이요 폭은 큰 수레 3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Super Power.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악독한 성, 피의 도성이었습니다(욥 1 : 2, 나훔 3 : 1-5). 여러 나라를 지배했으니 피지배국에는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3 : 4)'는 회개촉구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도무지 상식 밖의 분부였습니다.

요나의 거부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말씀에 대한 거부감정이 생겼습니다. '악독한 도성은 회개할 필요도 없이 망해 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앗수르가 망할 것을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종교적, 신앙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선민 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원수 나라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가지 이유는 가서 말씀을 외치면 선지자가 왔다고 환영과 대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학대 밖에 당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불안, 초조, 공포때문이기도 했습니다.

****** 하나님의 분부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다가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점점 불순종과 무감각과 불평과 이기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모든 것을 자기 이해, 자기 수준,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자신의 내면성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고 마음 구석구석을 청소합시다.

기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성장연구원' 개설하여 세계에 복음의 빛 나누어 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목) 사명은 생명

찬송 276 성경, 욥1 : 2-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낚을 피하려고」(1 : 3)

요나가 받은 사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가지 명령은 마28 : 18이하의 예수님의 명령과 흡사합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창13 : 17, 수1 : 2, 행8 : 26, 9 : 10, 10 : 20)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흠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가서 다음에는 외쳐야 합니다. 증거는 사명이요 사명은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사명 수행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의 반응 니느웨성의 악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무조건 순종 뿐인 성도의 삶에서 ‘그러나’는 조건부 불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너는 자꾸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순종만 해 보아라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 ※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면 살고 행하지 못하면 죽을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그러나’의 함정에 빠져서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양심생활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분부 앞에 ‘그러나’의 반응으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맙시다. 성결을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나 세상이 다 악하니 나 혼자서 성결해야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로 나락에 떨어지지 맙시다. 정도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부앞에 ‘그러나 세상이 다 제길로 가는데 나 혼자 정도를 걸어 벌 수 있습니까’로 거스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나’로 말씀하게 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명령은 정도이건만 날마다 ‘그러나’의 조건을 붙여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길을 다시 걷게 하옵소서. 새가족들을 살피시어 믿음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1:3)

제길로 간자 ‘그러나’의 조건부 신앙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합니다. 죄악의 도성, 원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 요나는 순간 못마땅하여 ‘그러나’의 이유를 달아 불쾌와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 딴 길로 가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되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도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제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길로 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야 할 요나도, 유다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제길로 간 것입니다.

백지 한장차이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결과 순종의 뜻과 달리 질투와 편협심, 고집과 불평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이름과 삶이 같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유익’이란 뜻의 오네시모는 도적질한 무익한 사람이었고 ‘무죄자’란 뜻의 삭개오는 실제로는 선량한 백성을 토색한 죄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삶의 차이가 백지 한장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조그만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제길로 갔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길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제길로 가는 길입니다.

******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확한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돌이킵시다.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삼읍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게 합시다. 침묵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외칩시다. 내가 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시다.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합시다.

기도 성경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건만 욕심과 이기심과 나태와 무지때문에 부지중에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 길을 저버리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님, 윤태곤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인도네시아 복음화가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낮을 피하여」(1:3)

도피행각 불순종의 심리가 작용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와와 낮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시 139:7). 컴컴한 새벽, 아직 땅거미가 거두어지는 새벽이 오기 전, 저 동쪽 바다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전, 새벽햇살의 날개를 타고 도망을 갔으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요나는 항로를 바꾸어 읍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썸은 지리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귀한 진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하는데 땅거미처럼 내려갑니다. 요나는 읍바로 내려 갔고 배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1:5). 그가 어디까지 내려 갔습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2:6).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파도 밑 산 뿌리까지 내려갔으니 엄청난 낙하입니다. down, down and down.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자꾸 내려 가는데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걸 한걸 내려갑니다.

여호와와의 추적 여호와와 새벽날개보다 더 빨리 요나를 추적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봐도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앎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 도처에 편만해 계시는 하나님을 어디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 삶이 자꾸 내려갑니다. 사업이 안되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었습니까? 교통사고, 화재 재난이 자꾸 일어나 되는 일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으시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하루속히 돌이키십시오. 그 길만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 오늘도 도피행각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불쌍히 여기소서. 육호기 선교사님의 건강을 불드시고 독일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 (주일)하나님의 주권

찬송 30 성경, 온 1 : 4 - 6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1 : 6)

포기하지 않는 주권 ‘도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부터의 도피 혹은 그 포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센 바람과 폭풍을 요나를 향하여 ‘세계 던졌습니다’(원어의 의미). 순종치 않는 종을 죄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선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의 간섭이 매우 혹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죄가 그를 무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풍과 공포, 놀람, 열광적인 일들이 그의 잠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건을 보는 눈이 감겨집니다. 그의 잠을 이교도가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하라고 회교도들이 하루에 다섯차례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생활의 부끄러움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요나는 배삿을 지불했으나(1 : 3)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배삿만 아깝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메시에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는데 불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불통인 것 같으나 형통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목적을 이루되 삿까지 받아가며 이룹니다. 요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되 삿까지 잃었습니다.

**** 풍랑 가운데 휘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까?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싸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에 비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나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어 혹독한 매로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킬 힘도 주옵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준교 선교사님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1 : 5)

하나님의 회유책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요나는 내리막 길로 가게 되었고 선가는 지불되었으나 목적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한 범죄가 타인까지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유정책을 쓰셨습니다. 큰 광풍을 일으켰습니다(1 : 4). 하나님은 자연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선원으로 상징됨) 들은 경제문제, 평화문제, 질병문제, 대립문제, 세계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서 구출받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짐을 바다에 빠뜨리는 지혜와 사람까지 던져야 하는 최악의 노력을 동원하나 결국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풍량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유책인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현실 외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로 일어난 세상 풍량은 한계를 넘어서 이방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범죄를 한 요나는 죄는 자기가 범해놓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그 거스림 때문에 일어난 환란을 외면한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성에 직면하여 외면하지 말고 직감하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를 깨닫고도 외면한다면 해결은 커녕 오히려 무중요요 공중 누각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풍량이 일고 있습니까? 사업이 막혔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유책입니다. 풍량의 노도에 무감각해서는 안됩니다.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그 의미를 타진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오히려 무중요에 빠져들어 정신이 마비되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명철을 구하십시오.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간을 회유키 위해 자연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풍량을 일으켜서라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쳐도 무감각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 영이 깨우쳐 주옵소서. 김재창 선교사와 안석열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파리와이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1 : 10)

일장춘몽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들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다. 배가 가고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싶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1 : 4).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순간 그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선장은 요나의 잠을 깨웁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안전한 잠은 없습니다(시127 : 2). 잠을 깬 요나 앞에는 무서운 태풍이 생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잠이 야말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제비는 시행되었고 요나는 뱉혔습니다(잠16 : 33). 요나는 결국 질문공세를 받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생업, 고국, 민족이 무엇이냐” 불순종한 자의 결국은 고난과 환란과 고통과 두려움 뿐입니다.

진정한 두려움 요나는 질문공세를 받고는 선지자의 역할로 돌아 갑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되었노라”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태풍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배신행위와 이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주위에 일어난 풍랑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존재케한 원인, 나의 죄를 더 무서워 해야 합니다.

**** 양심이 알도록 현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일장춘몽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이 태풍으로 쫓아 오실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돌이킵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곳에 재앙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양심의 고통, 내외적인 폭풍을 면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 징계의 태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근, 질병, 사상의 혼탁, 무력 상잔들의 원인을 이 민족에서 제거하기 위해 함께 기도 합시다.**

기도 봄날의 짧은 잠이 어찌그리도 단지요 그러나 배신의 잠이라면 속히 깨게 하시고 양심의 눈을 열어 주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유재일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칠레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1 : 5)

그릇된 방법 태풍이 불자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신을 부르는 종교행위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물건을 바다에 던졌읍니다.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이 불량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니 환경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는 문제해결은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릇된 해결 더욱 흉흉한 풍랑에 우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요나가 대답할 정답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배를 니느웨로 돌려라' 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자기의 연고라는(1 : 12하) 문제점은 알았지만 요나는 바른 해결책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반항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 요나가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역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해결될 일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악독과 강박이 여지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요나는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성도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거해 보지 않은 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반항입니다.

** 사명을 받은 장소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이탈되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이탈된 장소에서 사명을 받은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피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장소가 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해결이 될지 모르나 영구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기도 종교행위로도 환경정비로도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른 회개를 통해 해결하게 하시고 반항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1 : 17)

비극의 밑바닥 불순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나락에 떨어진 사실을 체감하는 것에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비극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2 : 2).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스올의 밑바닥까지 가야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로드십 ‘스올’은 ‘지옥’이라는 말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기적이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계시의 짜인입니다. 자연기적을 통해서도 자연의 주되심을, 치유기적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자연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주성(Lordship)을 보여 주시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아 스올을 체험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마 16 : 4-). 기적은 설명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 고난이 복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맵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가 없는 기적, 마귀도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것에 미혹당하지 맙시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든 상태에서도 주님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자체가 기적입니다. 병든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입니다.

기도 스올의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돌이킬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믿음으로 주앞에 서게 하소서. 엘리야겔간 선교사님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인도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금) 심연의 기도 ①

찬송 482 성경, 욥 2 : 1-4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2 : 3)

정직 요나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깊은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진실해졌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 진실해지는 법입니다. 화씨 108°의 열기로 끓는 곳이니 용광로 속같은 생지옥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거짓과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2 : 1).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시50 : 1). 고난 당하는 사람은 두가지 태도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 고난을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요, 또 한 사람은 고난을 지고 완악함으로 여호와를 등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여호와께 다 내어놓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진 것이 자기의 실수나 사공들의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2 : 3). “이 파도는 당신의 파도요 이 물결은 당신의 물결입니다” 요나를 재판정으로 끌어내어 유죄판결을 내리시고 사형을 선언한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풍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연에서 요나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수십만의 불신앙의 백성이 사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선언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으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죽으나 죽기는 일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의미없는 죽음을 죽느니 차라리 복음을 외치다가 죽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아직도 심연의 체험을 못해 보았습니까?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스올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고통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라 봅시다. 이미 스올의 체험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입니까? 당시에 드린 저원을 갚읍시다. 생명 내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갑시다.

기도 할만하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쓴 것 단 것 괴로운 것 즐거운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게 하소서. 박행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서사모아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2 : 4)

메타노이아 요나의 두번째 기도는 참회(메타노이아)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2 : 4) ‘참회’는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참회의 기도는 죄를 끊는 순간에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눈을 다시 여호와와의 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역하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활의 방향을 180°로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이 기도는 육지에 올라와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물이 영혼까지 둘러친 깊은 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산의 빗장이 가로막은 상태에서 드린 기도입니다(5-6).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음부같이 어둡고 지옥같이 기막힌 거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에 휘말려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엄마앞에서 거절을 당해도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작전을 펴는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므로 하나님이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을 인식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보는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짧은 기도속에도 진정이 토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사각오의 태도로 주님앞에 섭시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보채고 투정부리는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설득을 당하게 하옵소서. 전미령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케냐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주일) 심연의 기도 ③

찬송 348 성경, 욥 2 : 8-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2 : 9)

가치관의 변화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6, 9)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2 : 9). 지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고 녹아드는 빛 한점 없고 머리 위에는 노도광풍이요 숨막히는 악취와 열기, 캄캄한 밤, 환란의 밤, 절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의 인격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안의 죽음이 불순종의 삶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인생관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로서’(2 : 9).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인격적이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나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다는 사실이 축복이요 위로요 은혜입니다. 구원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면 이미 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환경으로부터 온다면 이미 소망의 줄은 끊어졌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스올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1 : 21)는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 ※ 환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실체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관념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격체시요 실체이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십시오. 쓴 화살에 먹이가 걸린 것을 확인하듯이 기도의 응답을 체크해 보십시오. 선행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알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요나의 신앙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병세 선교사님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일본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3 : 1)

참기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아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집단적 부흥운동이 일어난 사실이 또한 기적입니다. 육신적 기적이 기적이라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새사람 되는 것에는 큰 기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운동은 어떤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해 나가십니다.

재소명 자격상실을 당한 요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링아웃(Ring out)을 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번째 말씀을 또 주십니다. ‘두번째’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를 다시 불러서 목적 이행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수치스러운 분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어서 배신한 사람을, 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맡기셔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소명이 다른 명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이십니다.

******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계십니까. 모세처럼 아직도 미디안 광야에서 머슴처럼 살아가십니까. 요나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멀리 떠나 도망친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번째, 아니 스무번째, 삼십번째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치 맙시다. 999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기도 날마다 링아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거듭 불러주시고 일감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의료전도단에게 은혜를 주시어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3 : 3)

리바이블 영적인 부흥운동은 결국 요나가 순종한데서부터 시작
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3 : 3의 초두에 우리말
성경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내
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요
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러
므로’도 ‘그러나’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되어야 합
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그러나’ 속에는 도망치는 것
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러나’ 속에는 폭풍이 있고 신
원들이 구원을 받고 큰 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요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에는 요나의 외침이 있고 니느웨 백
성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와 부흥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 말씀
이 요나와 함께 있어서 요나는 그 말씀을 우렁차게 외치게 되
었습니다. 그 결과로 니느웨는 큰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운
동의 결과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부흥은 언
제든지 회개 운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개인의 부흥도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메시지는 교회부흥과 가
정부흥, 개인의 부흥을 출발시킵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요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 : 5). 신앙의 근거는 메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민23 : 19),

※※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부흥을 체
험케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이웃에 손해를
끼칩니다. 생활 가운데 ‘그러나’가 많은가요? ‘그러므로’가
많은가요? ‘그러므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십자가 복음을
‘피복음’ ‘송아지 복음’이라고 배척하는 이 악한 세대에 나
아가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칩시다. 민족이 살고 세계
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 날마다 ‘그러나’로 조건을 달며 멀리멀리 도망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용납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 고
통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3 : 10)

사악한 니느웨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민23 : 19). 그런데 요나를 통해 40일 후면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으니 모순 같습니다. 미래 사실까지 아시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니느웨는 사악한 니느웨, 강포가 있는 니느웨, 불의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받지 못할 니느웨, 바로 그런 니느웨를 말합니다.

새로운 니느웨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니느웨는 회개하고 새로워진 니느웨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니느웨, 깨끗한 니느웨, 새 모습으로 변신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케 한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뜻은 최악된 니느웨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하여 구원시키는데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이 오는 길은 두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말씀 선포와 성실한 경청(순종)입니다. 이 말씀 선포가 없이 조직을 아무리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별 재간을 다 부려도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격까지 개조됩니다. 예수 믿고 새사람 되는 것은 영혼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품격이 완전히 예수의 품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뒤에는 구원하시려는 사랑과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와 악에서 돌이킵시다. 새 마음 새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어 기도와 새로운 성품을 날마다 쌓아갑시다.

기도 징계의 채찍을 날마다 맞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어린아이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니느웨 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국군장병들을 지키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목) 선지자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송 405 성경, 룎4 : 1-2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4 : 1)

자기 정당화 요나의 불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에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4 : 2) 날보고 가서 재앙을 내린다고 소리를 치라고 했으니 결국 나만 병신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요나의 불만은 하나님의 입장과 자기의 입장을 분별못한 소치입니다. 이 사건을 자기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오히려 항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작전 요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과실을 오히려 지적하고 하나님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도록 설득작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요나도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탄의 장난은 언제나 진리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사탄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안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자기 신학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오용하고, 성경에서 자기 행동의 근거를 찾으려는 비신앙적 태도가 많습니다. 성경을 합리화하여 해석합니다.

※ ※ 이웃 집에 불신자가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게 되어 불만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자기 정당화는 불신앙입니다. 더우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항변하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결과의 부당성과 타당성을 판단치 말고 낭패와 곤고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날이 더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쁨의 때를 떠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 불평 불만 원망이 습관이 되었사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당화나 설득작전을 펴지 않는 겸손을 허락하옵소서. 북한에도 하루속히 복음화되는 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4 : 3)

맹종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어투에서 나타납니다.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순종한 후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 하는 순종이나 분노에 차서 하는 복종은 불순종보다 악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맹종이라고 하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굴종이라 합니다.

불화 요나가 아직도 불만에 가득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개조를 하려는 생각이 도무지 없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눈물을 툴툴 흘리면서 회개 기도까지 드렸으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날 죽여 주시오, 억울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표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심에 기쁨이 없고 자기 뜻을 못 이룬 것을 못내 슬퍼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너무도 짧아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요나는 또한 그가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모르다니 넌센스입니다. 명색 가지고는 안됩니다.

****** 아직도 감사한 마음과 감격이 없이 맹종이나 굴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 마음이 유쾌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신앙 생활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자는 아닙니까?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합치 못한 요나처럼 어디서나 화합치 못한 자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집 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 주여, 유쾌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과 이웃의 뜻에 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맹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매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출현가족들을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4 : 5하)

집요한 질문 “내가 내백성 구원하고 있는데 네가 성별 이유가 무엇이나(4 : 4) 박녕쿨 하나 없어진 것도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 백성 없어지는 것 내 마음이 어떻겠니?(4 : 9). 네가 박녕쿨 아끼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내 백성을 아끼는데 박녕쿨 까닭에 화를 내는 네 마음을 안다면 내 백성 까닭에 아픈 나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4 : 11)

체면 손상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체면 상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성에서 나갔습니다(4 : 5). 그 성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밖으로 나가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성에 가서 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3 : 2-4) 개인의 휴식처를 지었습니다(4 : 5). 더 나쁜 것은 구경꾼 노릇(4 : 5)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와 불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도, 두번째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은 기껏 박녕쿨 뿐이었습니다(4 : 6).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박녕쿨이 없어지자 화를 냈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 명예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명분론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민족도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개인의 휴식처, 정신 안정을 위한 장소로, 어떤 방패막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하는 것 구경하면서 ‘잘되나 보자’ 하는 것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 명분. 체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구경꾼 되지 말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국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3 : 10)

요나서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속죄일에 회당에서는 유대인의 의식의 일부로서 항상 요나서가 읽혀졌으며 사람들은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와 같으니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인 것도 기억합시다.

요나서 1 장 혹은 전장(시간이 허락되면) 을 읽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한 절 씩을 골라 읽게 하고 전 가족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절수를 아래 칸에다 기록해 둡니다.

아버지 :

어머니 :

언니 :

오빠 :

동생 :

통성기도 :

- 1 (토) 시대의 징조
- 2 (주일) 취(醉) 농(農) 제(祭)의 슬픔
- 3 (월) 피바다
- 4 (화) 마음을 찢으라
- 5 (수) 회복하는 복
- 6 (목) 다른 신은 없다
- 7 (금) 성취된 예언
- 8 (토) 공동체
- 9 (주일) 결심의 골짜기
- 10 (월) 두가지 아이러니 두
- 11 (화) 심판 중의 위로
- 12 (수) 분부와 거부
- 13 (목) 사명은 생명
- 14 (금) 유다 같은 자
- 15 (토) 새벽 날개를 타고
- 16 (주일) 하나님의 주권
- 17 (월) 공중 누각
- 18 (화) 깨어나야 할 꿈
- 19 (수) 종교적 행위
- 20 (목) 스올의 고통
- 21 (금) 심연의 기도①
- 22 (토) 심연의 기도②
- 23 (주일) 심연의 기도③
- 24 (월) 투와이스 콜링 (twice calling)
- 25 (화) 그러므로
- 26 (수) 선포와 경청
- 27 (목) 선지자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 28 (금) 불순종보다 악한것
- 29 (토) 명분론
- 30 (주일) 내가 바로 요나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다같이
- 2) 성경봉독...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